

식민주의적 건축 용어에 대한 짧은 생각

최우용

건축가, 자유 기고가

1

식민 36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다. 한 세대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의식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고, 주체적 삶을 향한 당연한 욕망은 철저히 억압받아야 했다. 굴종과 굴욕의 시간. 이 암흑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말을 말하지 못했고 우리글을 쓰지 못했다. 불현듯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억압하기 시작한 외부자/타자(他者)들로부터,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었으나, 억압하는 타자에 대하여 억압받는 자아(우리)는 주체적 삶을 철저히 부정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광복은 찾아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기어코 오고 말 것이라는 한 시인의 소망처럼, 36년의 가혹한 겨울은 가고 해방의 봄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지만 관성은 무서운 것이었다. 관성은 말 그대로 계속 그러하려는 상대나 성향 등을 의미하는데, 광복 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건만 식민주의의 관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중 우리말에 늘어붙어 있는 식민의 관성은 일상다반사로 확인된다. 올해 초 광복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국회의 공적 자리에서 한 국회 의원이 ‘겐

세이' 놓지 말라고 호통쳤다. 본인이 의사 발언 하는 데 훼방(견제) 놓지 말라는 것이다. 겐세이(牽制, けんせい)라? 이 말은 필자도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킬걸거리며 자주 주고받는 용어인데,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일본어 사용의 예는 때와 장소(국회나 당구장)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고관대작과 범부)를 막론하며,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도 이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야지(やじ, 야유)' 놓지 말라고도 말했고 '뽀빠이(ぶんぱい, 분배)' 해도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일본어 사랑은 비단 앞서 말한 국회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회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에서 오가는 언어적 수준과 품격이 여염의 그것보다도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기스(きず, 흠집)' 나지 않게 조심하고 '단도리(だんどり, 채비)'를 잘해야 하며 기름을 '만땅(まんタン, 가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민주의적 언어생활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역사적 몰이해와 언어적 감수성의 결여 그리고 무비판적 언어 습관은 우리말을 소외시키고 병들게 한다.

2

필자는 건축 설계를 업으로 먹고사는데, 때때로 건축 관련 글을 써서 이런 저런 매체에 기고하기도 하고 그런 글들을 모아 단행본 책을 내기도 한다.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글 쓸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실무를 하고 또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건축 분야의 식민주의적 잔상과 우리말 소외 현상이 다른 분야 못지않게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구한말 전까지 우리말에 '건축(建築)'이란 단어는 없었다. 건축이 없었다고? 그렇다. 오늘날의 건축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영조(營造), 영선(營繕), 영

건(營建) 등의 단어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존 용어들을 대신하여 건축이란 단어가 일본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건축이란 단어를 조어(造語)했는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하여 서구의 건축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서구어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새롭게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목조 가구식 구조(木造架構式構造, 나무 부재를 맞추고 이어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의 영조와 서구 석조 조적식 구조(石造組積式構造, 돌을 쌓아 올려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의 아키텍처 상호 간에 차이가 현격했기 때문인데, 이는 비단 구조물을 만드는 재료와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구와 동아시아의 건조물에 대한 문화적 양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다.

1894년 일본의 저명한 건축 사학자이자 건축가인 이토 주타(伊東忠太) 등에 의해 건축이란 단어의 사용이 확정되었고, 이 건축이 바다 건너 조선으로 넘어왔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그들 식민의 땅 조선 반도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또 수탈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구의 건축이 일본을 통해 들어와 우리 삶의 기반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다.

개화기 대부분의 서구 문물이 일본을 통해 이식된 것처럼 건축 분야 또한 그러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은 그 단어 자체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였다. 우리에게 ‘건축’의 역사가 이러할진대, 건축 분야의 식민주의적 잔재와 잔상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넓고 깊다.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의 사용은 특히 고질적이라고 할 만하다. 해방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식 건설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필자는 건축 설계를 하고 도면 그리는 일을 주업으로 하지만, 그러한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일 또한 중요한 업무

로 삼는다. 90년대 후반에 대학 교육을 받은 필자는 일본식 건축 용어¹가 아닌 우리말 건축 용어로 전공 공부를 했다. 1990년대 전후로 발간된 《건설 표준 용어 사전》 등의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말 건축 용어로 교육받은 필자 또래의 건축학도들은 졸업 후 현장 실무를 접했을 때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는 온통 일본식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책상물림으로 컴퓨터 화면만 보며 도면을 그리던 나는 첫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첫 현장에서 ‘오야(おや, 현장 시공 책임자)’가 하는 말을 필자는 충격적이게도 거의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본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나에게서는 해독 불가능한 외국어였던 것이다. 현장에 나타난 초보 설계 실무자에게 나이 많은 노련한 현장 소장은 ‘전문’ 용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초짜의 기를 초장부터 죽였다. 현장에서 잔뼈와 통뼈가 모두 굵은 현장 소장은 그렇게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파릇한 건축인에게 이 바닥의 식민주의적 관성의 공고함과 무서움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보통 이때부터 초보 건축인들은 정글과도 같은 건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식 현장 용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왠지한 건설 현장에서 거칠 대로 거친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을 상대하는 데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일본식 건설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건설 표준 용어 사전》 등이 오히려 일본식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 거꾸로 이용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전까지 구매했다 공부하는 부지런한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공사 현장의 앞뒤 상황 속에서 특정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일본식 건설 용어를 익혀 나갔고, 지금은 어지간한 일본식 건설 용어는 거의 다 알고

¹ 본문에서 사용하는 ‘건축 용어’, ‘건설 용어’ 등은 서로 같은 의미로 문장과 문맥에 따라 혼용하였다.

있다고 자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현장에 나가면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말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번갈아서 사용한다.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의 나이가 지긋해 보이면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젊어 보일 때에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경우에 우리말 용어로 현장 업무를 보고 싶지만 앞서 말했듯 관성은 무서운 것이다. ‘규준틀(規準틀, 건축물의 윤곽을 바닥판 등에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란 용어를 들어 보지 못한 상대에게는 ‘야리가다(やりかた)’라고 말해야 업무 내용을 수월하게 지시할 수 있고, ‘할석(割石, 돌이나 구조물 따위를 갈아 내거나 잘라 내는 일)’이란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하스리(はつり)’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율화가 치미는 것은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무시당하기 십상인 현장의 분위기다. 나는 일본식 건설 용어가 익숙해질 때쯤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도 우리말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어린 놈’, ‘똥도 모르는 놈’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일부러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건설 현장의 극도의 보수성과 식민주의적 관성은 실로 기가 막히고 말문마저 막히게 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와 같은 끼인 세대 건축인들이, 문화적 충격 속에서 양쪽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주위 삼킨 덕분에, 요즈음 건축 실무에 들어오는 후배 건축인들이 현장에서 우리말 건설 용어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필자와 같은 세대의 건축 실무자들이 의식적으로 우리말 용어를 사용할 때나 가능하다. 습관이 무섭고 관성이 무서운 것처럼 시나브로 입에 뱀 일본식 용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야말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며 수단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우리말을 생각의 근간으로 삼고 또 생각의 도구로 활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는 한 뼘의 길이만큼도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 우리말로 생각할 때 보다 명확한 사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야리가다’라는 단어의 습관적 사용은 우리말 건축 용어인 ‘규준틀’이 소외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것은 일본어가 우리의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는 ‘야리가다’라고 말할 때보다는 ‘규준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규준(또는 기준)이 되는 틀(또는 열개)’이라는 사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틀 또는 열개가 빗나가서는 안 되며, 건축 공사의 도입부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공정임을 ‘규준틀’이라고 말할 때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테나우시(てなおし)’라고 말할 때보다는 ‘재시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기존 공사의 수고와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재시공이란 단어가 반복 언급될 때, 테나우시라고 말할 때보다 사안의 위중함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고 다시 시공하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좀 더 꼼꼼히 상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작고하신 황현산 선생님은 학술 용어를 번역 없이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학술 분야의 세태를 걱정하셨다. 선생님은 이러한 원어 의존으로 우리말 전체가 학문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모든 지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걱정하셨다. 지당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단 학술 용어뿐이겠는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은 우리말을 소외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더디게 한다. 이런 언어적 관성은 무서우리만큼 지금 여기에도 선연하여 일상의 많은 곳에서 식민주의적 언어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도입부에 말한 ‘젠세이’나 ‘야지’, ‘뽀빠이’,

‘기스’, ‘단도리’, ‘만땅’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지면에 다 쓰기 어려울 만큼 그 예는 차고 넘친다. ‘야리가다’나 ‘하스리’나 ‘테나우시’ 등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식민주의적 용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말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말 용어가 무시당하고 욕보는 것이 건설 현장의 민낯이다. 오죽하면 세부적인 용어들에 대한 사전이 나오겠는가?

무비판적 언어 습관으로 우리말은 우리에게서 격리되고 소외된다. 그럴수록 우리 사고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말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축 현장 용어 뿐만 아니라 건축 학술 용어, 그리고 필자가 생활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쓰고자 한다. 서구어에 대한 남발과 의존은 지적 열등감에 그 근본이 있으며, 일본어에 대한 습관적 사용은 우리말의 오염과 사고의 저급함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필자 또래와 후배 건축인들이 오로지 우리말 건축 용어만으로도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란다. 때와 장소,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우리의 생각을 쓰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것으로 이 짧은 생각의 글을 마칠까 한다.